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7월 5일(주일) 제1302호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1차 7월 6일, 2차 9일 오후 7시 30분~ 9시 30분까지
오프라인(서빙고 본당), 온라인(ZOOM), 교회 유튜브 참여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가 7월 6일(월)과 7월 9일(목)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막 오른다. 오프라인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온라인 Zoom, 교회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다.

7월 6일 1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에는 윤현덕 장로(서빙고공동체)가 사회를 보고 윤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주영재 집사(분당B공동체, 물류회사 대표),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 운영),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학교 교사), 김창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주)엘스톤 대표)가 패널로 출연한다. 경제, 교육, 신앙 등 분야별 상황, 신앙생활과 교회의 변화, 새로운 미래 준비(제언)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7월 9일 2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The Next?'에서는 황진숙 교수(강남공동체, 건국대)가 사회를 보고, 김윤 박사(영어예배, SK텔레콤 CTO), 김준 장로(관악금천공동체,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의석 집사(강남A공동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가 패널로 출연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 생명과학 전문가, 감염내과 전문가, 선교분야 전문가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1차, 2차 각각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 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 리더십 중에서 공동체별로 2인 이내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체 총무에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가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가하지 않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34, 323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차 토론주제: 뉴 노멀(성도가 느끼는 세상과 교회의 변화와 제언)

시간(분)	내 용
19:30-19:35(5분)	모두 인사(이재훈 목사)
19:35-19:45(10분)	순 감담회와 설문지 서베이 결과 설명(윤영각 장로)
19:45-21:25(100분)	〈사회자〉 윤현덕 장로(서빙고공동체, 선교본부 운영위원) 〈패널 토론자〉 · 윤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 주영재 집사(분당B공동체, 물류회사 대표) ·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 운영) ·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학교 교사) · 김창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주)엘스톤 대표)
21:25-21:30(5분)	마무리(이재훈 목사)

2차 토론주제: The Next?(전문가가 보는 세상, 교회의 변화와 제언)

시간(분)	내 용
19:30-19:40(10분)	온누리 미래준비 개요: 초대식 장로(마포공동체, 미래준비위원회 TF팀장)
19:40-21:10(90분)	〈사회자〉 황진숙 교수(강남공동체 안수집사, 건국대 예술디자인) 〈패널 토론자: 4명〉 · 김윤 박사(영어예배, SK텔레콤 CTO: AI, 5G를 포함한 ICT기술 R&D 총괄) · 김의석 집사(강남A공동체, CMN 의료사업팀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 김준 장로(관악금천공동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WMTC 선교훈련원장)
21:10-21:30(20분)	마무리(이재훈 목사)

'2020 에스라 프로젝트!' 실시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가하는 '성경필사'
공동체별 성경 1권, 소속 안 된 성도는 홈페이지 신청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성도들이 참가하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이하 에스라 프로젝트)가 7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8주 동안 이어진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성도 개인의 영성관리 및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성경필사를 하는 프로젝트다.

에스라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체별로 성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을 필사한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역자(전임, 파트)와 장로들은 성경 1권 전체를 필사한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첫째, 공동체별로 필사자를 자원 받아 확정된 다음 필사범위(분량)를 배분한다. 둘째, 7월 4일과 5일부터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나눠주는 필사지와 에스라 프로젝트 가이드를 수령한 다음 필사자들에게 나눠준다. 셋째, 8월 30일(주일)까지 성경을 필사해 총

무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된 성도들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필사지를 수령하면 된다.

에스라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이 있다. 성경필사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성경(우리말성경)과 필사지, 펜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기도를 한다. 음 필사할 본문을 3회 통독한다. 그리고 나서 성경말씀을 정자로 깨끗하게 써 내려가면 된다.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쓴다(수정액 사용금지). 필사지 상단에 인덱스(본문 장, 절)를 표기하고, 하단에 필사자 이름을 기입하면 된다. 완성된 성경필사는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개강

7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강의

온누리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이 개강한다. 7월 7일(화)부터 9월 1일(화)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총 80개(서빙고 28개, 양재 29개, 부천 5개, 수원 4개, 대전 4개, 남양주 2개, 평택 1개, 인천 3개, 강동 3개, 양지 1개) 특강이 이어진다.〈공동체 여름방학특강 과목안내 14면〉.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은 공동체 담당 목회자가 여름방학특강 영상을 지정된 웹사이트(유튜브 일부공개)에 올리면 성도들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지 않고 순장을 통해 url을 받으면 된다. 다른 캠퍼스, 공동체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소속 공동체 특강을 제외한 다른 캠퍼스 및 공동체 강의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주제가 무척 다양하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훈 목사), 신약 성경통독(송석근 목사), 새롭게하시는 성령님(박성은 목사) 등 영성함양을 위한 강의를 비롯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전략(오은규 목사), 예비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가정 디자인하기(김승훈 목사), 좋은 어머니스쿨(유영순 목사) 등 가정사역 관련 강의가 준비를 마쳤다.

또한 90년대생 이해하기(최성민 목사),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이강현 목사),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한충희 목사) 등 시대의 이슈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통찰하는 강의도 이어진다.

문의: 공동체 총무, 양육총무, 담당목사

/ 정현주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세계관은 삶의 전반에 대한 전제들의 집합이다. 이 전제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우리 삶에 가장 폭 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전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관은 유신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다.

유신론적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에는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경쟁하는 다른 세계관들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성경과 창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변론하는 일을 탁월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신의 존재를 전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유신론적 세계관은 크게 일신론, 다신론, 범신론으로 나뉜다. 일신론은 유대교-기독교-이슬람의 뿌리인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으로 전제

하는 세계관이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력종교이다. 유대교는 여호와가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슬람교는 알라와 선지자가 정한 규범을 지키고 선행을 더 많이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 반면 기독교는 타력종교이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신론에는 그리스-로마 신화처럼 지혜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미의 신 등 전문 분야를 가진 신을 전제로 하는 세계관이 있다. 정령신앙은 자연의 영역별(산, 바다, 동굴, 고목 등)로 그것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고 전제한다. 산신제나 해신제를 올리는 것은 그곳을 관할하는 절대적 존재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다. 가나안 족속들도 풍요, 결실, 다산 등 자신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전제로 했다. 힌두교도 수없이 많은 신이 있는 종교다.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지만 인간이 해탈의 경지를 지나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를 신적 존재라 간주할 때 모든 것에서 신성을 찾는 범신론이다. 일본의 신도는 불교에 기반한 범신론에 정령신앙, 무속신앙 등이 혼합된 종교다. 가는 곳마다 각종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고, 집의 현관마다 섬기는 신이 여럿 존재한다.

중세시대 유럽인의 모든 삶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반 위에 있었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신학 외 인문학, 과학 등 다른 학문들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는 시대라는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 이신론(deism), 즉 이성적인 신론이 등장한다. 이것은 인간과 격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전제한다. 유일한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직접 계시하거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창조하시되 간섭하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다. 이신론에 설득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무신론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신론 이후 모던시대에 인본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무신론적 세계관이 쌍둥이처럼 태어난다. 이들은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진화론을 환영했고, 서로 공명하며 진화론을 과학이론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정착시켰다. 이후 너무나 이성적인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반이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나치 독일 치하의 삶, 소비에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의 문제점을 경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고안해 낸 것이다. 집단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이들

무신론적 세계관의 공통적인 특성은 물질로 존재하는 것만 인정하는 자연주의다. 신이 없다고 전제하므로 우주와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의식, 인격, 이성, 영혼 같은 것은 인간 두뇌활동의 결과일 뿐 허상이므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 진화론의 패러다임 하에 무신론적 세계관들이 오늘날 교육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학교에서 다른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소개받는다. 따라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여러 세계관의 요소들로 얼룩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기준에 의해 선택되고 있는지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얼룩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점검하고 닦아내어, 맑고 깨끗한 성경의 렌즈로 만들어 가야 한다.

묵상: 크리스천인 나의 세계관에 침투해 있는 무신론적 혹은 다신론적 요소가 있는가?

충돌하는 세계관 유튜브 강의:

<https://youtu.be/LOEMfEHoSFU>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이 들면 믿음도 늙나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한 어르신이 “나이 들면 믿음도 늙는가?”라고 한숨 쉬며 내게 물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늙어가니 믿음이 약해지고, 정신도 감빠져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잊었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나는 성경을 펴서 읽어드리며 말했다. **그분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크게 적어달라고 하셨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후 4:16)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는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는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들을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그들은 흠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며 내 손바닥에 새겼다’(사 49:15-16)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노년,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에 안고 업고 구하여 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사 46:4).”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지켜나가야 한다. 나이 들면 겉모습을 보고 자기연민에 빠지기 쉽다. 세상은 ‘엔트로피법칙’에 의해 모든 것이 낡아지듯 믿음 역시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긴다.

복음은 내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 나를 지배한다. 우리의 육체는 깨지고 흠 많은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나의 의가 깨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친구들은 나를 강단제일이라고 한다. 그러

나 실상은 약하고 오래 견디는 힘이 내게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에 나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걷기를 매일 실천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 41:31).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5).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시 92:14).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또 선포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잘 지치지 않는 편이다.

늙는 것은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약해진 다리도 운동을 조금씩 꾸

준히 하면 근육이 생겨 잘 걷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주 사용해야 자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주셨던 일을 기억하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때, 나이 들수록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조금씩 뛰어넘다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 후손과 다음세대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자. 말씀이 결론이 되는 믿음을 가진 노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2세부터 금식을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틀림없이 누가 마리아로부터 직접 듣고 기록한 일일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가던 중에 하룻길을 가셔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셔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44절).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풍습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가족 단위로 출발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큰 무리를 이룹니다. 친척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가게 됩니다. 당연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큰 무리를 지어서 출발하게 되고, 집에 가까울수록 작은 가족단위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무리지어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12살이지만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어린 시절에 대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일행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스펔전 목사님은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붙인다고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단순히 참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뒤에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붙

는다고 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성대한 예배당과 풍성한 성경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임재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돌아가고 있으니 예수님도 돌아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

“3일이 지나셔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46~47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지만, 율법의 모든 지식을 회당에 가지도 않고, 대화의 과정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만 빼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기에 예수님의 배움의 능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2살 때 율법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율법학자들이 감탄할 정도의 율법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행동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을 더 알고, 율법학자들을 가르칠 의도였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말하고 실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일행들이 다 떠난 것을 알았다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하고 다시 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48절).

3일 동안 아이를 못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간담이 다 녹았을 것입니다. 그 상

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화도 나고, 안심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부모의 놀람과 분노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육신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동안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겪는 발달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자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읽으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도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임재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적인 분노와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를 정죄하면서 모임이 끝날 때는 예수님을 부르며 마칩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예수처럼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에게서 모든 신비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빼버리고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각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맞추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 뜻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육신의 자녀를 부모의 철학과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틀에 맞춰질 수 있었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불신앙은 자녀를 부모의 틀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의 틀에 제한하려고 할 때 어긋나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랑과 기대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긋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49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화가 더 났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인간적인 정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정을 떼는 것 같습니다. 정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12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사랑을 다 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느 부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으로 자녀가 먼저 죽어도 부모는 평생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봐야 합니다. 특히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을 기점으로 작심하고 정을 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청소년 시기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51~52절).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 사랑받는 예수님을 보면 이 행동이 청소년기 반항에서 나온 불순종이나 부모에게 대항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의 신앙이 더 성숙하면 부모님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오픈

젊은 부부, 차세대, 지역사회 복음화 위한 공간



세종교육관 입구(왼쪽), 세종교육관 예배당(오른쪽).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빛났다. 지난해 종강예배에서 김상수 목사가 세종교육관 설립 비전을 선포한 이후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건축헌금을 봉헌했다. 한 성도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종교육관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면서 세종교육관 설립의 주춧돌이 될 만한 거액을 헌금했다. 이 외에도 7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헌물이 세종교육관 설립을 적극 도왔다. 대전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은 인테리어 작업, 물품구입, 설계, 청소, 기도 등 각자의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기도 위에 세워진 세종교육관은 앞으로 차세대 양육, M센터, 미자립 농어촌교회 지원 등의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교육관은 대전 온누리교회와 예배, 양육, 사역, 선교, 공동체, 재정 등 모든 것을 공유하며 운영한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김건우 학생(차세대 꿈이 자라는 땅)은 “세종교육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난다”고 했고, 이상길 성도는 “세종교육관이 세종시 사람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상수 목사는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이 초대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종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전 온누리교회가 젊은 부부, 차세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맞춤형 공간 ‘세종교육관’을 오픈했다. 지난 6월 28일(일) 오후 4시 ‘세종교육관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상수 대전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 등 100여 명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참석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은 세종시 한누리대로 2257 판타지타워 4층 407호와 408호 공간을 사용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코너를 돌면 온누리교회라고 쓰인 입간판이 눈에 띈다. 그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진 예배당이 나온다. 그곳이 바로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이다.

세종교육관 설립 이유와 목적

대전 온누리교회가 세종교육관을 설립한 이

유는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세종교육관 설립을 위한 논의도 상당 기간 이어져 오고 있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며, 특별자치시로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대전시에 살고 있던 많은 인구들이 거주지를 옮겼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세종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출된 성도 중에는 젊은 부부와 차세대 가정의 특이 많았다. 출퇴근 문제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를 옮긴 성도들이 가까운 지역교회로 옮기는 상황이 점차 늘어났다. 또한 차세대를 데리고 매주 20km가 넘는 길을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듣고, 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며 오랜 기도 끝에 세종교육관을 설립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젊은 부부와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춰 예배와 양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의 꿈아이,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영역별 예배를 비롯해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양육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와 연계해서 부부세미나, 가정사역,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여러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지역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나가는데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다.

세종교육관을 설립하기까지

세종교육관을 설립하기까지 무엇보다 대전

사역칼럼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을 설립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인지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괜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대전 온누리교회의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설립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등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때마다 분명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이 들었다. 그렇게 대전 온누리교회가 왜 세종교육관을 설립하는지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를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사람(called up)을 의미하고, 부르 받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파송되는 것이 교회다(sended up). 애초에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내가 추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세종시 상황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대전 온누리교회 담장이었던 윤길중 목사님과 박태영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검토하면서 통찰을 얻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사무실에서 과거 사역기획서들을 검토하다가 세종시에 대한 비전을 발견했다. 성도님들과 그 비전을 나눴을 때 기쁘게 순종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둘째, 온누리교회는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온누리

‘Again Acts29의 정신’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그러한 비전을 보고 훈련받은 성숙한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성도가 ‘에클레시아’다.

세종교육관 설립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그분들의 시간과 열정, 재능과 물질의 헌신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세종교육관이 식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재점화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기도한다. 참된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를 염려한다. 성도 수와 재정의 어려움, 다가오는 시대에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교회는 어떤 위기에서도 사라지거나 영적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교회는 다시 개혁되고 새 창조될 뿐이다. 언젠가 하용주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 컨퍼런스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목회는 항상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기보다 사도행전을 텍스트 삼아 묵상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해본다면 기회가 찾아 올 수 있다. 참된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바다 속에 길을 만드시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이 ‘Again Acts29의 정신’으로 돌아가 초대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MC 김영우가 만난 뮤지션 그리고 은혜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200회 특집방송

가요계와 CCM계를 넘나들며 크리스천 뮤지션을 소개하고 있는 CGNTV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가 200회를 맞이했다. 7월 4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20분에 특집방송을 방영한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는 국내 크리스천 뮤지션의 음악과 신앙, 인생을 소개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회 동안 크리스천 뮤지션들과 시청자들의 다리가 되어준 MC 김영우 형제(한강공동체, 스위트소로우 보컬)를 만나 그동안의 은혜를 나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MC로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보다 더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계시는 스태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MC를 맡게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세상적인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는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분들에게는 음악을 만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신 출연자들에게 저는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신앙과 음악, 어떤 은혜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묻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주 한 주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MC로서 보낸 지난 4년은 저에게 정말 큰 행복을 선물하고, 저의 신앙과 삶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만나면서 가수로서의 삶과 방향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를 진행하면서 가수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특히나 가스펠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니까 언제 어디서 불러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출연자들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듣는 찬양은 감동이 두 배가 됩니다. 특히 그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과 생각들이 제가 곡을 만들 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가수 김영우가 만드는 노래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담고자 고민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스윗사운즈 200회 특집 출연진들과 김영우 형제(가운데).

또한 저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게 또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변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제 삶이 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곡과 가사를 쓰고, 가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 마음으로 작곡한 ‘그대에게 하는 말’이라는 곡은 ‘사랑해’, ‘정주나요’처럼 인기를 얻는 노래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중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곡을 쓰면 누군가에게 닿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요계는 더 높아지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되는 것만 신경 쓰고 제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모래위의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솔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출연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크리스천 뮤지션과 곡이 무엇입니까?

“달빛마을이라는 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산 달빛마을에 사는 부부라서 팀 이름을 달빛마을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동기로 만나 결혼하고 찬양사역팀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달빛마을팀은 부부가 함께 찬양하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찬양사역자들도 잘되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지만 하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달빛마을팀이 시한부 환자 가족들의 초청으로 병원에서 찬양콘서트를 열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잔치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달빛마을팀이 찬양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달려가서 찬양으로 기쁨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과 영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달빛마을TV’ 채널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찬양을 꼭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염평안씨의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에 출연하셔서 염평안씨가 피아노를 치고, 조찬미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알았어도 요게벳은 잘 몰랐는데 모세를 갈 대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라는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더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곡은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찬양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좋은 노래가 가진 영향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200회 특집방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CGNTV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200회 특집 방송’이 7월 4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20분에 방영됩니다. 시청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서 진행됩니다. 출연진들이 사연을 읽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신청곡들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출연진만의 ‘스윗사운즈송’을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계획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스윗소로우의 멤버로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CGNTV 스위트사운즈 MC로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출연자들의 마음과 신앙을 잘 전달하고, 출연자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MC가 되고 싶습니다.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고백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그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연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잘 꺼내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요즘 신선호 성도(김포공동체)는 매일이 기쁘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던 가족(큰언니, 작은언니, 조카)구원 기도가 한날 한꺼번에 응답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8일 만난 신선호 성도의 얼굴에는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기쁨이 담백 묻어있었다. 신선호 성도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게 된 사연을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우리 언니들의 세례식...

30년 가족구원 기도응답 받은 신선호 성도



신선호 성도의 작은언니와 조카(왼쪽), 큰언니(오른쪽)가 세례를 받았다.

1990년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집안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결혼 이후였다.

“저는 대구에서, 남편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주말부부로 살았는데, 첫 딸을 낳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순천에 있는 학교를 알아봐줬어요. 그곳이 미션스쿨이었던 매산여고였어요.”

미션스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자격이 필요했다. 신선호 성도는 임시방편으로 남편이 어릴 때 잠깐 다녔다는 동네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

“정말 급하게 세례를 받았습시다. 그야말로 후다닥, 날림 세례였지요.”

그렇게 매산여고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미션스쿨이라 채플과목이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성경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재 연구하듯 성경을 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동료 교사(권사)를 찾아가서 성경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죄다 물었다.

“제가 질문이 너무 많고,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동료 교사가 다른 분을 연결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과외를 해주던 분인데 그 분이 학교에 오셔서 제가 하는 성경에 대한 온갖 질문을 성심성의껏 알려주셨지요.”

신선호 성도는 초신자들이 가질 법한 그러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분은 그 까다로운 질문에 참으로 흡족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한번은 십일조에 대해서 ‘내가 낸 돈으로 교회가 아무렇게나 쓰면 어떻게 하나?’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십일조를 내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그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더라고요.”

신선호 성도에게 성경을 알려주던 그분은 주중에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순천에 내려와서 과외를 하던 온누리교회 성도였다. 당시 하용호 목사님께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신선호 성도와 동료 교사 다섯 명이 그분에게 사정해서 ‘일대 오 제자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신선호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신선호 성도의 마음에 자연스레 전도 생각이 피어났다. 나를 구원하신 그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뭉글뭉글 생겨났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과부, 고아, 나그네’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보고 큰언니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큰언니가 과부가 된지 얼마 안됐었거든요...”

대구 사는 큰언니는 41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큰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부전화도 자주 하고, 유명 부흥강사 집회 설교테이프도 보내주기도 했는데 전도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의 열정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 쉽게 될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는 것이 바빠서 가족전도에 대한 열정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불붙고 사그라진 전도열정이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건 3년 전 서울로 이사 와서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서부터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려고 온 날 마침 JDS(예수 제자학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JDS 스태프가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다.

“저는 온누리교회 새가족등록도 하기 전에 JDS부터 신청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JDS 스태프로 섬겼다. 2년 동안 JDS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눈이 다시 뜨였다.

“제대로 신앙훈련을 받아보니까 그동안 제가 껌대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신선호 성도가 제자훈련에 한창일 때 작은언니가 암 선고를 받았다. 신선호 성도는 친언니의 암 판정 소식을 듣고 슬픔과 절망보다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 일을 계기로 언니를 전도해야 한다!”

작은언니는 딸 세 명을 낳고 난 이후 아들을 낳았는데 부처님한테 공양한 공덕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골수 불교신자였다. 그런 언니에게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면서 전도하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결과가 미미했다. 지난해 11월, 작은언니의 병이 재발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 작은언니가 죽기 전에 제발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싶어서 마음이 조금해

졌다. 그 마음을 딸에게 토로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런 일은 혼자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순모임에서 가족구원에 대한 기도제목을 나눴다. 그저 중보기도를 바랐던 신선호 성도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순장님이 순모임한 날 바로 목사님께 저의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바로 작은언니에게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경북 청도 암병원까지 목사님을 대동하고 가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언니를 전도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넘죽 받았습시다.”

이왕지사 기도하러 가는 거, 작은언니가 세례도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작은언니의 세례식이 준비되었다. 작은언니의 감동의 세례식에 증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조카(작은언니의 큰딸)도 일부러 불렀다.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언니와 조카가 동시에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목사님이 조카에게 ‘어머님과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조카가 바로 ‘예스’를 외치더라고요. 언니와 조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례를 받았어요!”

생각지 못한 기적이 또 연출됐다. 신선호 성도가 30년 전 가장 먼저 전도하려 했던,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었던 큰언니의 세례였다.

“목사님이 ‘이왕 청도까지 왔으니 대구에 계시는 큰언니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언니 집에 찾아가요.”

30년 동안 무던히도 복음을 전했지만 도통 귀담아듣지 않았던 큰언니가 그날 목사님의 방문과 동생과 조카의 세례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선호 성도의 30년 기도제목이 그날 한꺼번에 응답됐다.

신선호 성도는 오랜 세월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속앓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전도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께 저의 기도제목을 전달해준 순장님, 한 달음에 청도까지 달려와 주신 박성천 목사님, 중보기도로 힘을 더해준 공동체 식구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기적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가족구원을 꿈꾸다

신선호 성도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

무더운 여름, 북적거리는 어르신들의 열기로 가득해야 하는 복지관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휴관한 지 5개월,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지관은 어르신에게 든든한 한끼 식사이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배우고, 일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던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닫고 어르신들과 만남이 중단된 이후, 저희는 어떻게 이 사태를 헤쳐 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에 오지 못하지만, 어르신이 계신 공간에서 함께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직접 만든 밑반찬에 따듯한 온기를 담고, 외출이 조심스러워 마트도 못 가셨을까와 식재료와 과일, 방역용품에 사랑을 담아 어르신 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험한데 배달 다니느라 밖에 자주 나와서 어떻게 해. 나는 덕분에 이렇게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좋지만...”

홀로 살고 계시는 어떤 어르신 한 분은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시며 안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신 반찬



어르신들의 밑반찬 도시락을 준비하는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

메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다음 만남에 꼭 들려주셨습니다.

혹시나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실까봐 복지관에서 선물해드렸던 콩나물 키트는 어르신들에게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최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워하셨던 한 어르신은 “요즘 콩나물 자라는 재미로 살아. 키워서 요리도 해먹고 일석이조야. 쟁길 생명이 있으니 삶에 힘이 나”라고 말씀하시며 다 자란 콩나물 사진을 보여주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외출이 중단된 어르신들에게 밑반찬과 콩나물 키트 같은 선물은 든든함을 넘어 삶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번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하고 만났지만 눈빛을 통해 우리는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하실 어르신들을 위해 ‘SK SUNNY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화상채팅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자서전 제작을 위

한 온라인 만남도 가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핸드폰 화면으로 만나는 대학생 짝꿍 봉사자와 함께 어르신들이 추억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 그리운 나의 부모님, 옛날 살던 동네, 나의 첫사랑 등을 회상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자서전 제작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혼자 자서전을 썼다면 딱딱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어.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두근두근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본 거 같아.”

어르신들은 매주 칭찬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정이 들어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정말 컸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여러 소통매체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일상을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한 분도 아프지 않고 다시 문이 열리는 그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차혜민 복지팀장(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공감소비운동 그 아름다운 현장

허브대학부-복지관 및 보육원 사역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매달 한 번씩 팀원들과 함께 청운복지관을 찾았다.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보육원 사역도 했다. 아이들에게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더 많은 허브대학부 지체들과 이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해 복지관 및 보육원 사역 관련 광고를 내보내려던 찰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사역이 일시 중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고,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닫힌 채 학업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냈다. 영상 예배와 QT를 통해 개인신앙생활을 지키면서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화되고,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던 와중에 교역자님께 연락이 왔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 사역에 관한 소식이였다.

공감소비운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이었다. 공감소비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서 복지관 어르신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떠올랐다. 한동안 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곧바로 복지관 팀

이 기쁜 시간, 행복한 사역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청운노인복지관과 청운보육원에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전달했다.

장님과 보육원 담당 선생님께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여쭙았다. 어르신들의 경우 반팔티 및 미끄럼방지 양말, 아이들은 도시락 세트 및 여름 대비 모기 퇴치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물품이 정해지고 전통시장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를 미리 검색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없는 지점이 대다수였고, 구체적인 물품 목록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과정

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에서는 물품 구매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구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물품 종류가 많은 보육원 근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감사하게도 물품 구매 당일 교역자님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품

을 구매할 수 있었다. 구매한 물품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각 사역지로 전달했다.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많이 외로워하시고, 프로그램 시간을 그리워하신다는 팀장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아이들 또한 우리와 함께 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담당선생님께서 전해주셨다. 얼른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달 사역했던 시간들이 정말 그림자.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금 깨닫는다. 사역을 기도로 더욱 준비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더욱 기도로 준비하고 기쁘게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교역자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물품 구매하는 시간에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했다. 소중한 추억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마무리되어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이 기쁜 시간, 행복한 사역을 누리고 싶다. 허브대학부 MC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활동이 재개되면 광고 및 홍보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이 귀한 시간과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용준 형제(허브대학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노력에서 발의되었다고 하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보편적 양성평등을 무너뜨리는 과잉역차별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성경적 가정과 사회로 필히 변화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교계 지도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교계의 중요한 성명서와 교회 내 성명서를 게재하여 성도들에게 이 법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인간을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 이해가 바탕이 되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자유 및 인권 존중과 평등정신의 기반 위에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개

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장과 평등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한국 교회 교단장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1.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3. 국회의 여야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4.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0년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장 일동

한국교회총연합 회원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총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A)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
예수교대한감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주요 내용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반대
서명 사이트
<http://sign.healthysociety.or.kr>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총회장 성명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고, 존엄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생존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간 이해를 천부인권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회는 인권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했다. 유엔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일도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의 구현으로 여기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선언을 법률로 구현하여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 총회의 모든 지교회와 목회자들은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아래 몇 가지를 기초로 기도와 설교를 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에 보호법이요 동성에 반대자 처벌법과 같으니 이를 철회하라. 대법원에서 3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동성에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와 비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2.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나 그 행위를 반대한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훔치는 것을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에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되기를 바란다.
3.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교인에게 불경을, 유교인에게 논어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기독교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수의 약자 보호라고 한다면, 왜 마약 복용자는 소수인데 보호하지 않고 처벌하는가? 그것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 아닌가?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창조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생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7만5천여 한국 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연대하여 거센 항의 대으로 투쟁하게 될 것이며 국론은 크게 분열할 것이므로 이의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고용, 교육,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행정 영역 등의 사회 전반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시민들을 동성애자를 혐오나 차별했다고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전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6.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친동성애 정책을 펴는 자들과 지지단체의 실체를 밝히는데 힘을 것이다.

2020년 6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성명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20개 내외의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당하고, 충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있지만 권고기능 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2-5배 배상금 부과)’,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부과하여 국민을 겁박하려고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은 동성에 반대와 비판을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해체하려는 사악한 음모일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 정체성’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1. ‘성적지향’과 ‘성별(젠더)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다. (유전이 아님)
2.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다.
3. 동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등의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
4.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사회가 되면,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체제가 바뀐다.

우리나라에서는 균형법을 제외하고, 건국 이래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한 적이 없으며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교육, 고용, 사회복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약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행위로 접수된 진정 사건은 81건 이었고 그 중에 인권위가 내리는 수사 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 권고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한국에서 성적지향에 기인한 차별이 동성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명확히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즉,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역사 구조적 편견과 차별의 유산’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할 역사적 당위성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를 넘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등에 단순한 차별금지 선언이 아니라 이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 동성혼 합법화와 잡혼과 난혼의 법적 승인을 야기할 수 있다.
- 2)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 3)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성 화장실, 여성 목욕탕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 4) 수십 가지 젠더 및 제 3의 성 도입 (남성, 여성의 제 3의 성)
- 5)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제 3의 성 옹호 성교육 실시가 가능해짐
- 6)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상담과 치료의 금지

현 정부는 보편적인 일반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소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 ‘에이즈’ 같은 심각한 문제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퀴어 축제’를 서울시장 앞에서 열도록 허락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한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과 부모의 양육권 등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채용의 자유, 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게 될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므로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 1) 종교 의식의 자유 침해
-설교의 제한 (동성애 반대 등의 설교는 금지 됨)
- 2) 종교 선교의 자유 침해
-동성애 반대 신앙 서적 판매 금지, 상담 금지 등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전도 행위 금지
- 3)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
-학생 선발 요건 철폐 (신앙, 동성애, 성전환자 등)

-동성애 불허 학칙 철폐

이에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래 사항들을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에 보호법이요, 동성애자 반대자 처벌법과 같으니, 이를 철회하라.

2.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다만 그 행위를 반대한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창조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생활생태계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 7만5천여 한국 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연대하여 거센 항의 대으로 투쟁하게 될 것이며, 국론은 크게 분열할 것이므로 이의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교육, 고용,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행정영역 등의 사회 전반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동성애자를 혐오나 차별을 하였다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전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5.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친동성애 정책을 펴는 자들의 왜곡된 논리와 지지단체의 실체를 밝히고 일반 국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5일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회장 양유식 장로

故 김영길 장로 소천 1주기 추모예배

CGNTV 웹사이트, 유튜브 추모다큐 다시보기 제공



故 김영길 장로 1주기 추모예배에서 장순홍 총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화)故 김영길 장로(한동대 초대총장) 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한동대학교 김영길그레이스스쿨에서 드린 1주기 추모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한동대학교 이사장), 김영애 권사(유족 대표), 한동대학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故 김영길 장로 1주기 추모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한 인생’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김영길 장로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한 인생이었다”며 “제2, 제3의 김영길 장로님이 배출되는 한동

대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장순홍 총장(한동대학교)은 “학교 곳곳에 김영길 총장님의 흔적이 새겨져있다”며 “한동대학교가 세속화되지 않고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애 권사는 “김영길 장로 1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한동대학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故 김영길 장로는 199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북 포항시에 있

는 한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공부해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독교정신 기반의 인성교육에 앞장섰다. 2016년 6월부터는 한동대학교 명예총장을 맡아 대학 발전에 매진하다 2019년 6월 30일 소천했다.

한편 CGNTV에서는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김영길 장로 1주기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을 방송했다.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미디어 챌린지’ 이벤트

공동체 챌린지, 방구석 챌린지, 올데이 챌린지

CGNTV가 오는 7월 9일부터 30일까지 ‘미디어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동체 챌린지, 방구석 챌린지, 올데이 챌린지 총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동체 챌린지는 공동체가 함께 성경읽기에 도전하는 이벤트다.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잠언>을 함께 읽으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공동체는 CGNTV 홈페이지,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양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방구석 챌린지는 7월 9일 ‘CGNTV

SOON’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3분 메시지 PICK & PACK>를 시청한 다음 댓글로 소감을 남기는 이벤트다. <3분 메시지 PICK & PACK>은 더 깊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다.

올데이 챌린지는 스마트폰으로 CGNTV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GNTV 라이브 앱’을 설치한 시청자들에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선물하는 이벤트다.

CGNTV 미디어 챌린지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능통하거나 기업재무관리 경력이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다. 구비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양간증문 포함)다. 구비서류는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기도책자 활용한 10가지 영역별 기도

여성사역, 마리아행전 기도책자 발간 및 배부

여성사역본부가 2020년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에서 발간 및 배부한 기도책자를 활용한 10가지 영역별 기도를 시작했다. 10가지 영역별 기도는 여성사역본부에서 발간 및 배부한 기도책자를 각자의 자리에서 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운동이다.

그 기도책자에는 2020년 마리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문이 담겨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 교회,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다음 세대, 사회, 문화·미디어, 북한과 통일 등을 주제로 10가지 영역별 기도제목이다.

아직 기도책자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온누리교회 영상예배

유튜브 채널 및 CGNTV

온누리교회 영상예배는 유튜브 채널과 CGNTV를 통해서 드릴 수 있다. 토요주일예배 1~3부, 일요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토요일 없음)를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다. 차세대 및 대학청년부(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와 사랑부(장애인예배) 주일예배 또한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드리고 있다. 성도들의 영성생활을 돕는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공동체 여름 방학특강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전화로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할 수 있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전화하면 된다. 등록교인만 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마다가스카르 긴급구호

이키안자 마을 600가구, 주민 1,100명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6월 27일 마다가스카르 이키안자 마을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박진 실무관과 Ampangabe시 시장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코로나19 긴급구호는 이키안자 마을 600가구, 주민 1,100

명에게 마스크 3,300개, 비누 1,100개, 쌀 5,500kg, 식용유 1,100통, 겨울 옷 5쌍을 지원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이웃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Children of Life, 생명력이 있어!’

한동대학교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한동대학교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Children of Life, 생명력이 있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어캠프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재학생들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동문 및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나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소 첫날 전수검사와 출입구 통제, 2인 1실 기숙사 사용, 1일 2회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비용은 210만원. 신청은 홈페이지(camp.handongedu)에서 하면 된다. 문의: 054-260-3042

어머니학교 유튜브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을 주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다. 1회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이들과 생기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2회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쏟아내고 후회하는 엄마’, 3회 ‘현실 속 부부의 세계: 배우자의 외도로 위태로운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등록되어 있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수강생 모집

기독교상담학과

일정: 8월 31일~11월 23일(매주 월/화, 총 12주)

내용: (월요일반) 인간이해/정신역동, (월요일반) 상담기초/상담실제, (화요일반) 중독상담/청소년상담
회비: 28만 원(8월 25일까지 홈페이지 등록 후입금 시 2만 원 할인)

결혼예비학교 221기

일정: 8월 8일, 15일, 22일(매주 토, 총 3회)

회비: 15만 원(커플 2인 기준)
인원: 선착순 160명(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설교 듣는 법 ‘분별과 은혜’

일정: 7월 20일(월요일)

내용: 설교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듣는 성경적 원리, 설교 듣는 자로 부름 받은 영광

회비: 3만 원(7월 13일까지 홈페이지 등록 후입금 시 1만 원 할인)
문의: 02-2078-3456

전문가 기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

대화 십계명, 좋은 대화법에 관한 성경적 지혜



이장로 장로
(여의도공동체,
한국리더십학교 교장)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말
한마디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
다. 성경 특히 잠
언은 좋은 대화법
에 관한 지혜의 말
씀으로 가득하다.
잠언에 따르면 사
람이 죽고 사는 것
이 말의 능력에 달

려 있다고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1).

필자는 본 기고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대화법을 제시
하고 싶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대화 십계
명’이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다섯 가지

첫째,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
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
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고 말씀하
고 있다.

비판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
적이지 않다. 오히려 사람을 방어적인 입장
에 서게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안간힘
을 쓰게 만든다. 때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은 사람의 원한을 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
이 좋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대안을 제
시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형제들아 서
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
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약 5:9)고 말씀한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
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결과 하나
님께 심판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
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
여호와와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
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
라”(민 11:1-2).

원망은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
이마져 갈라놓는다. 부모도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들으면 크게 낙심하며 실망한다.

성경적 대화 십계명

해야 할 말

- 감사의 말을 하라.
-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하라.
- 공감하며 경청하라.
- 상대방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으라.
- 실수를 지적할 때라도 체면을 세워줘라.



하지 말아야 할 말

- 비판하지 말라.
- 원망하지 말라.
- 화를 내지 말라.
- 거짓말하지 말라.
- “당신이 틀렸소”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셋째, 화를 내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
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히브리인의 욕설)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
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
야 한다(엡 4:26-27).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약 1:20).

사람은 대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
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한다. 그렇지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다고 성경은 말한다(잠
14:17, 29).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
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다
(요 8:44).

십계명도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출 20:16). 실정법에
서도 거짓증언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법까
지 가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신용을 잃
게 되고, 관계도 깨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
유는 욕심 때문이다. 때로 사람에게 잘 보이
기 위해 거짓말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주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다섯째, “당신이 틀렸소”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만일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일
종의 도전이다.

논쟁에서 최선의 것을 얻어내는 유일한 방

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당신이 틀렸소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나는 종종 그러니까요. 그러니 사실
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
쟁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럼 상대방도
자기 생각이 혹시 틀릴지도 모른다고 재고
하게 된다. 만일 자기 생각이 틀렸다면 즉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싸우지 않고 상대방
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해야 할 말 다섯 가지

여섯째, 감사의 말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
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8).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그리
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좋다(엡 5:4).

감사의 말은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감사는 듣는 사람에게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한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한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
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
람들의 도움도 받기 어렵게 된다.

일곱째,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하라. 칭
찬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아침의 말은 사실
이 아니라는 점에서 칭찬과 다르다. 사람들
은 누구나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듣고 싶
어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
을 받으려는 본능이 있고, 중요한 인물이 되
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직
한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인
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
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덟째, 공감하며 경청하라. 공감적 경청이
란 상대방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 언어를 눈과 가슴으
로 듣는 것이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먼저 경
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라’이다. 우리
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
깊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그들의 가치를 이
해하게 되고, 이를 넘어 더 큰 존경심을 느끼
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접
촉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다.

아홉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으라.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몇 백 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최근에 이룬 업적
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신이 나서 대답할 것
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친구를 만드는 좋은 방법
이다.

열째, 실수를 지적할 때라도 체면을 세워
줘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도 본
인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상사가 자기 자신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
니라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지적을
받는 부하도 그다지 반감을 갖지 않을 것이
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상
대방의 체면을 구기는 말은 그 사람의 자존
심에 상처를 줄 뿐이다. 실수한 부하를 격려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고
무하는 상사가 되어야 한다.

■ 온라인 양육 갈라디아서 간증



/ 문수진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양육이 진행되어 좋았던 점을 꼽는다면 첫째, 목사님으로부터 일대일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 강의를 반복 재생해서 들을 수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양육이 오프라인 양육보다 배움에 있어서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사도 바울과 믿음과 함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등하던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이방인인 내게도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이 말 그대로 내게 ‘좋은 소식(Good News)’으로 전해졌고, 이제는 복음이 믿어져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느끼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

입급번의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신원석 목사님으로부터 정성스러운 회신을 받았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는 새로운 세계관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축복의 삶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 때는 목사님과 일대일로 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온라인 양육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회신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향한 목사님의 열정이 내게도 전달되어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는 성경을 다시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주신 박종길 목사님과 매주 과제에 회신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우치는데 도움을 주신 신원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 세례간증



/ 서혁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았다. 그러다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같이 훈련 받았던 동료들과 눈 덮인 산에 놀러가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여기서 멈추길 원할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지만, 약속된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결국 동료들 모두 자기 갈 곳으로 갔다.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공허함이 찾아왔다. “인생의 참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한번 해결해볼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겼다. 그러면서 신앙의 멘토를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러기에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노력이나 능력,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나를 위해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나의 신앙고백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성경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 뭇 듯이 기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행복했다. 그리고 조금씩 주님과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 어려움과 난관, 실망되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살게 되었다. 신앙이 나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었으며, 실제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를 택하시고 함께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한 아내의 간증



/ 이미옥 성도(가명)

그 결혼식을 계기로

북한을 나와 중국에서 생활할 때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때는 내가 신분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기념으로 남길 사진만 찍었다. 한국에는 내가 먼저 들어왔고, 2년 후에 남편도 한국에 왔다. 그 후로는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힘을 쏟았고, 결혼식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루원에서 나온 이후 경기도에 숙소가 배정됐고, 이웃 할머니의 권면으로 근처 교회에 출석했다. 그 이웃 할머니를 따라 온누리교회 탈북민공동체에 간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혼 목사님께서 서울까지 오는 것이 너무 머니 경기도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정 권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 권사님과 가족 같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정 권사님은 주말이면 우리집에 찾아와 함께 교제하고 가셨다. 그때 우리 아이가 5살이었는데 권사님께 “할머니”라고 하며 참 잘 따랐다. 그 즈음 교회에서 나중에 꼭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제안을 하셨다.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작년 10월 온누리교회 캠퍼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는 것이 다 그렇듯 티격태격 하면서 자녀를 보고 살았는데 결혼식 당일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았지만 내게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나보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법적인 부부이지만 책임감이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어차피 사는 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신앙은 20여 년 동안 바운 모습과 똑같으며 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식을 계기로 올해부터 정 권사님과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맞으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만나서 나눔을 가졌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일대일제자양육을 멈추고 있다. 코로나19가 어서 끝나 권사님과 다시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싶다.

■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 이종민 목사(사천 사촌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 사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민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온누리교회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6월 25일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승합차를 기증받았습니다.

미자립 농어촌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목회자 가정 생활하기 부족한 생활비. 둘째, 열악한 사택. 셋째, 교회 차량의 노후화일 것입니다. 미자립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에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꺼내놓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촌교회 역시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자립 농어촌교회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사촌교회 역시 낡고 고장이 잦은 차량을 교회 주변 짧은 거리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게 수리해서 사용해왔고,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폐차권고를 했습

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으로 사촌교회가 차량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지원받은 차량은 마을들을 누비며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 전도사역에 있어 우리의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촌교회 인근 여러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데도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와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분에 교회의 큰 고민 하나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받은 차량은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로 삼은 인근 12개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농어촌선교팀 사역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절함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옷을 벗자! 두 손을 펴자!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물결처럼 일렁이며 주체할 수 없게 불어오는 바람기(氣)는 반 평도 안 되는 낚시터, 나만의 공간을 누군가가 흔들기 때문일까? 야생 들소가 겨울의 무게를 지고 간 자리에는 이제 막 싹틔운 민들레가 퇴색된 가랑잎에 반쯤 몸을 가린 채 슬며시 고개를 내밀어본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순환인 것 같다. 철마다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지혜를 발견한다. 자연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변화하며 다음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낚시터에 앉아 가만히 추억에 젖어본다. 그리움이나 추억 같은 것도 질량을 가진 무게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낚싯대를 들었다 놓았다 할 때마다 낚싯대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에 아리고 시린 옛이야기들이 떠오른다. 떠오르는 기억을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에 담아 하나둘씩 떨구며 내려놓는다. 무게를 가진 것은 내려놓으면 다 가벼워지는 것일까? 겨울의 무게가 무너져 내려 삭아 내린 마름, 땃장, 물풀들 사이에서 봄을 준비하는 봉어들들을 살며시 깨워본다.

어느 날,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 무겁다고 하시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의 그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겨우 100여 그램 무게의 낚싯대가 이제는 햇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손목에 힘이 들어간다. 수줍은 듯 살짝 내려앉은 찌의 미동에 찰나의 속도로 반응하던 순발력은 이제는

찌가 드러누워야 낚싯대에 손이 간다.

교묘한 달빛은 어두움이 걱정되는지 가끔씩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보고, 수면의 야광찌는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에 무단시 얼굴을 붉히며, 허영심 많은 카시오피아 왕비가 하늘에서 점점 허영의 빛을 잃어가고, 물안개 낀 저수지에 한 쌍의 물오리가 수면을 차고 오르며 새벽을 알릴 때쯤, 살림망의 봉어들들을 다시 쏘아버린다.

“놓아줄 것을 왜 잡느냐?”

친구의 비아냥거림이 들리는 것 같다.

“놓아야 채우지...”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선 쌓아두며 움켜쥐는 것인데, 가을에 옷을 벗는 나무들에게는 비움이요, 놓아버림이다. 비어있으나 가득 찬, 텅 빈 충만이 나무의 지혜인가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껴입었던 옷들을 벗어야 한다. 나를 가리려고 겹겹이 껴입었던 위장복들을 모두 벗고 벌거숭이로 두 손 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신(赤身)에 꼭 맞춰 뚫려있는 내 십자가를 옷을 걸치고는, 주먹을 움켜쥐고는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다.

무념, 무상, 무아의 낚시 삼매경이 어느 순간에 몽클몽클 솟아올라오는 회한과 아쉬움으로 다시 채워져 간다. 어차피 내가 비운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그 욕심이 잉태되어 여전히 무게로 짓누르는가 보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데 들고 갈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분 앞에서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안다 하시며 그냥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 앞으로 그냥 나아가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잃어버린 빈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넘치도록 채워진 두 손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두 손을 기다리며 보고 계신다. 옷을 벗자! 두 손을 펴자!

권사칼럼

기도는 호흡, 생명, 생명줄

이명화 권사
(수원 온누리교회)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하기에 조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 외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다.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제약 받지 않으니 틈이 날 때마다 공부했다. 수업을 시연해보기도 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마지막 시험을 치르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정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갈등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도 생각하기 나름이었다. 자녀들에게 매일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해 주기 위해 나름 요리를 공부해보기도 했다. 음식을 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시간이었다. 자녀들 또한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생인 자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기도와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Q&T를 하면서 기쁨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잘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짧은 심방을 통해 이웃들과 간단히 만나고 있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예배에 대한 마음은 늘 아쉬웠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안전수칙을 지키며 주일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아쉬움들이 존재했다.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행전에 참여하게 됐다.

올해 마리아행전은 특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에 임했다. 입장할 때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기로 자리번호를 작성하고,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소독과 열 체크를 실시했다. 집회를 진행하는 3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예방차원에서 물 마시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눠주는 생수로 육의 목마름도 해결했다. 물 한 병을 나눠주시는 것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을 보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모두 함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려보니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가득했다. 예배당에 모인 마리아들은 모두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다. 마리아행전에서 나눠주신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이며, 생명줄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달았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소망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악이 크더라도 용서를 구할 때 허물을 용서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늘 응답해주시는 소망의 주가 되심을 알았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된 이번 마리아행전을 통해 크게 부르짖었던 기도는 이 나라의 안정과 화합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화해시키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는다. 더불어 나의 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대학청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정한호 목사
(Pole2대학부)

‘비밀상의 일상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진 거대한 화두다. 코로나19는 익숙했던 예배자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일상적이지 않았던 환경과 상황을 일상처럼 받아들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위에 서게 되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대학청년부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순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과 사역이 장기간 온라인 혹은 잠정 연기 상

황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은 계속되어야 할 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할까?

첫째, 이럴 때일수록 영적 우선순위가 더욱 분명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신앙생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모임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이렇게라도 모임이 가능하니 감사하다’는 고백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상황이 익숙해짐에 따라 참여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 지체들에게 온라인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표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가 ‘흥미가 없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대답 속에 담긴 ‘기대감이 사라진’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

었던 물음은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순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기대와 소망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에는 친목과 교제의 기능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기능’보다 앞설 수 없다.

둘째, 이 시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과 홀로 마주했던 시간’에 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 사울의 위협을 피해 광야에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며 보냈던 시간의 힘이 축적

되어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관계지향적 동물인 인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거리두기’의 도전을 주었다. 어쩌면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검증될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활발한 교제가 곧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 여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에서 이 거품이 걷어지고 보니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약했는지 적나라하게 깨닫고 만 것이다.

코로나19 시대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과 지금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는다. 쉽지 않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

인생의 경험은 더 많지만 영적인 깊이는 자녀가 더 깊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적인 분이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보다 앞설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신앙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뭘지 아십니까? 다툼과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인 좋은 관계가 예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인 교회에서 묵화하면서 일부 성도들이 묻쳐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일심동체로 움직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주장하면 무엇이든지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인간적인 정과 의리, 관계,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날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빠질 수 있었던 문제를 예수님이 미리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일 만큼만 가까웁시다!”

너무 멀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 가까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수님이 보일 만큼만 가깝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찾고 있는 예수는 육신적인 자녀인 예수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입니까? 어떤 교회활동에서입니까? 나의 성취에서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에서입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찾는 것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안에(in my Father's)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입니다. 소유격으로 끝나고, 그 뒤에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라고 했을까요? 소유격 뒤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번역 같은 번역에서는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합당한 것은 집도 되고, 일도 되고, 사람들도 됩니다. 풍성한 의미,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에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합니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심령, 거룩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집에 계시기에 우리도 아버지의 집을 향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행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추측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빠졌던 신앙의 모순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임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맞출 때 아버지 안에, 그 뜻 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지상명령이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0 공동체 온라인 여름방학 특강

캠퍼스	담당 목사	강의명(특강 주제)	개강일(업로드 시작일)
서빙고	조준목	영적 뉴노멀	7월 16일/매주 목
	전병천	데살로니가 전후서	7월 15일/매주 수
	강미향	삶에 실체가 되는 구원론	7월 14일/매주 화
	박철웅	균형잡힌 성령론	7월 17일/매주 금
	최용준	임마누엘 일기	8월 7일/매주 금
	이비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1)	7월 17일/매주 금
	송석근	신약성경 통독 (한눈으로 보는 교리)	7월 16일/매주 목
	한화수	기독교 교리사	7월 9일/매주 목
	박형준	요나서 팀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7월 14일/매주 화
	한충희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7월 14일/매주 화
	신원석	미래사회 교회 & 영성	7월 14일/매주 화
	노규석	choice in the history	7월 14일/매주 화
	이기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1)	7월 7일/매주 화
	박성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8월 7일/매주 금
	여성민	Money 머니? 기독교 재정관	7월 22일/매주 수
	최성석	시편 서론	7월 24일/매주 금
	김요성	요한일서 읽기(실시간 강의)	7월 28일/매주 화 pm 8:00~9:00
	이찬우	신천지와 바른 신앙 (실시간 강의)	7월 8일/매주 수 pm 8:30~9:30
	고범석	동성애(실시간 강의)	7월 15일/매주 수 pm 8:00~9:00
	이서진(대청)	복음의 능력	7월 15일/매주 수
부천	원유경(대청)	예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7월 28일/매주 화
	김윤식(대청)	구약과 신약사이	7월 17일/매주 금
	이길택(대청)	인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7월 21일/매주 화
	배행삼(대청)	실때 보면 더 잘 보이는 복음서	7월 17일/매주 금
	정한호(대청)	사도신경에서 만난 나의 신앙고백	7월 15일/매주 수
	박천중(대청)	보다 깊은 묵상	7월 22일/매주 수
	안사무엘(대청)	성경에 빠지다(구약)	7월 31일/매주 금
	최종현(대청)	성령, 그 다양한 얼굴	7월 29일/매주 수
	정형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이야기	7월 10일/매주 금
	조병홍	창세기 읽을수록 궁금해요	7월 10일/매주 금

캠퍼스	담당 목사	강의명(특강 주제)	개강일(업로드 시작일)
양재	이상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4가지 얼굴	7월 10일/매주 금
	김승훈	예비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가정 디자인하기	7월 24일/매주 금
	김영배	자존감 형성하기	7월 14일/매주 화
	김도균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	7월 14일/매주 화
	이기복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이다	7월 24일/매주 금
	박태영	"남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아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7월 17일/매주 금
	양성민	더 깊은 묵상을 통한 기독교 영성 형성	7월 24일/매주 금
	오 민	구속받은 관계	7월 24일/매주 금
	홍기완	기도의 사람	7월 24일/매주 금
	조바울	복음서의 KEY	7월 24일/매주 금
	전신의	보라 새것이 되었다	7월 17일/매주 금
	김대진	거룩의 능력	7월 17일/매주 금
	이정환	사랑의 언어	7월 24일/매주 금
	조현수	예수를 만난 사람들	7월 24일/매주 금
	이한구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음 선포	7월 17일/매주 금
	윤마리아	성경적 세계관	7월 24일/매주 금
	백인규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7월 24일/매주 금
	이원진	이스라엘 랜선 성지순례	7월 25일/매주 토
	김재석	일상예배	7월 14일/매주 화
	김정희	WOW!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7월 14일/매주 화
	김승수(대청)	광야학교	7월 24일/매주 금
부천	최성민(대청)	90년대생 이해하기	7월 24일/매주 금
	김용민(대청)	하박국으로 보는 인생문답: 기다리며 노래하기	7월 22일/매주 수
	윤현규(대청)	예수님 답변해주세요!	7월 24일/매주 금
	이준인(대청)	성령으로 달라진 내 성향	7월 24일/매주 금
	최대홍(대청)	길 위의 하나님	7월 22일/매주 수
	이우람(대청)	사도행전으로 함께 보는 초대교회사	7월 21일/매주 화
	한은선(대청)	함께 걷다 넘어진 그곳에서	7월 24일/매주 금
	김한국(대청)	다섯 가지 제사이야기	7월 24일/매주 금
	이윤재	사도행전의 땅을 가다 -역사 지리로 보는 사도행전	7월 10일/매주 금
	정형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이야기	7월 10일/매주 금

캠퍼스	담당 목사	강의명(특강 주제)	개강일(업로드 시작일)
수원	서 현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7월 7일/매주 화
	전재표	다시 보는 예수님의 비유	7월 9일/매주 목
	이상진	슬기로운 예배생활	7월 24일/매주 금
	유영순	좋은 어머니 스콜	7월 8일/매주 수
대전	김상수	성경의 감을 잡아주는 ‘감자성경’	7월 17일/매주 금
	윤석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 〈이단염치기〉	8월 7일/매주 금
	김성웅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7월 12일/매주 일
	정현석	기독교 세계관 알아가기	7월 24일/매주 금
남양주	지대근	일과 성령	7월 7일/매주 화
	허원희	기독교적 생태학 특강	8월 7일/매주 금
평택	하청훈	세계 교회사-초대교회사	8월 7일/매주 금
인천	문장원	찬양의 능력	8월 7일/매주 금
	유수열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 (학개서)	7월 12일/매주 금
	김종아	가정에서 배우는 기독교(입문)	8월 8일/매주 토
강동	송재호	기도하는 부모의 능력	7월 10일/매주 금
	오은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전략	7월 24일/매주 금
	김병조	선교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선교사	7월 23일/매주 목
양지	이강현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실시간 강의)	8월 9일/매주 일 pm 2:30~3:30

*문의: 각 공동체 총무, 양육총무, 담당목사

지혜로운 여름 생활
더위는 저 멀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CGNTV MEDIA CHALLENGE

2020. 07. 09 - 07. 30 챌린지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01. 함께 읽는 지혜의 말씀 '잠언' 공동체 챌린지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를
매일 시청하며 공동체와 함께 잠언 통독에 도전하세요.

참여 방법 공동체별로 잠언 통독 챌린지를
신청하고 매일 댓글로 인증

상 품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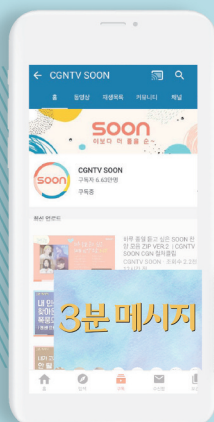


02. 나만의 공간에서 나누는 은혜 방구석 챌린지

CGNTV SOON 채널에서 <3분 메시지 PICK & PACK>을 시청하고
'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댓글로 나눠주세요.

참여 방법 가장 은혜로운 장면의 영상 시간(분:초)과
간단한 나눔을 댓글로 작성

상 품 SOON 채널 굿즈 (순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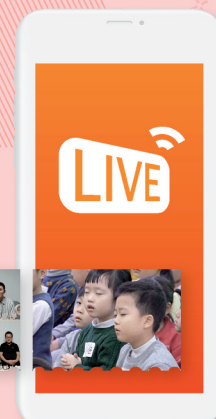


03.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복음 올데이 챌린지

CGNTV 라이브 앱으로 지금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모습을 인증해주세요.

참여 방법 CGNTV 라이브 앱을 설치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시청하는 사진을 전송

상 품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자세한 참여 방법은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에서 확인하세요>